YANMAR

1

전남의 여건과 도정방향

제1절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
제2절 도정 운영방향

1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

청정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 · 물 · 해변

○ **공기** : 산소 음이온*이 풍부, 수은, 납 등 유해 중금속은 환경 기준의 1/30 수준 * 음이온 효능 : 혈액 정화, 먼지 제거, 살균, 면역력 강화

– 전남의 산소 음이온 : 1,593개/㎤ (수도권 200개/㎤의 8배)

– 도내 산촌마을 대기청정도('12, 산림자원연구소)

항 목	단위	전남	전국	비 고
아황산가스	ppb	3.4	7.0	전국 평균의 1/2.1
이산화질소	ppb	2.0	4.7	전국 평균의 1/2.4
오 존	ppb	5.0	32.5	전국 평균의 1/6.5

※ 대기질('12) : 전남 미세먼지 36㎍/㎥(전국 평균 46㎍/㎥)

○ **물** :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셀레늄 다량 함유

○ **해변** : 인체에 유익한 게르마늄 등 미네랄이 매우 풍부

– 전남 신안 대광 96ng/L, 서해 대천 55ng/L, 동해 대진 50ng/L

전국 최고의 일조량

○ **일조량** : 전국 평균의 10%, 수도권의 20%이상 많음
- 전남 목포 5,110MJ(메가줄)/㎡, 전국 평균 4,584MJ/㎡, 서울 4,162MJ/㎡

○ **태양광 발전** : 814개 기업, 연간 232㎿ 생산(전국의 29%)
- 태양광발전('12) : 전남 63,291Toe(전국대비 26.6%) / 전국 237,543Toe
- 폐기물에너지('12) : 전남 1,394,229Toe(전국대비 23.2%) / 전국 5,998,509Toe

신재생에너지 생산추이

(단위 : Toe, 전국 비중 %)

		합 계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전국	2006	5,225,192	33,018	7,756	274,482	3,975,272
	2008	5,084,492	28,036	61,128	426,760	4,568,568
	2012	8,850,739	26,259	237,543	1,334,724	5,998,509
전남	2006	1,480,811 (28.3)	1,854 (5.6)	1,629 (21.0)	24,583 (9.0)	1,426,354 (35.9)
	2008	1,553,543 (30.6)	1,745 (6.2)	25,119 (41.1)	27,715 (6.5)	1,498,964 (32.8)
	2012	1,613,010 (18.2)	1,994 (7.6)	63,291 (26.6)	102,877 (7.7)	1,394,229 (23.2)

주 : '11년부터 폐목재는 폐기물에서 바이오로 분류 변경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 · 재생에너지센터, 20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해상풍력 및 조류발전

○ **풍력** : 전국 60% 이상의 해상풍력 잠재량(전국 15.4GW, 전남 9.4GW)

○ **조류** : 전국 조류자원 5,734㎿ 중 전남 5,711㎿(99.6%)

생태(역사)자원의 보고

세계적 해양자원

- 섬 : 2,219개 (전국 섬의 65.1%)
- 리아스식 해안 : 6,475㎞ (전국의 46.1%)
- 갯벌 : 1,037㎢ (전국의 41.7%)
- 바다면적 : 26,450㎢ (전국 바다의 37%)

전국 최대 규모 생태자원

- 국립공원 : 전국 21개 중 6개 보유
  - 국립공원 면적('13) : 전남 2,513㎢ (전국대비 37.8%)
    ※ 지리산, 한려해상, 내장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 습지보호지역 : 전국 32개소 중 7개소 보유
  - 습지보호지역 면적('13) : 전남 104.7㎢ (전국대비 31%)
    ※ 담양 하천습지, 장도 산지습지,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증도갯벌

세계적 선사유적

- 고인돌 : 전남 고인돌 19,000여기 (세계 고인돌의 38%)
- 공룡화석
  - 발자국 : 해남 우항리 528개 발자국, 화순 서유리 73개 발자국, 여수 사도~추도~낭도 발자국 3,500여점
  - 공룡알 : 보성 비봉리 100여개의 공룡알과 수천개의 공룡알 파편

생명의 원천

친환경농업 일번지

○ **인증면적** : 전국 최대 친환경인증면적(전국대비 60%)
- 친환경 인증면적('12) : 전남 75,948㏊ (유기 9,134㏊ 무농약 66,814㏊)
  ※'04년 대비 인증면적 20배, 농가수 16배 증가

○ **억대 부농** : 1억원 이상 부농 증가율 전국 최고(증 148%)
- ('09) 1,438농가 → ('10) 2,014농가 → ('12) 3,400농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선도

○ **친환경축산물** : 친환경축산 인증 전국 1위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12) : 전남 3,621호 (전국대비 39%) / 전국 9,308호

○ **친환경 조사료 생산** : 전국 최대 생산 (자급률 100%)
- ('11) 32천㏊ → ('12) 50천㏊ (전국대비 33%) / 전국 150천㏊

❑ 미래 식량자원의 보고(寶庫), 전국 제일의 수산도

○ **수산물 생산** :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7%
- 어업 생산량('13) : 전남 122만톤 (전국대비 47%) / 전국 260만 5천톤
- 어업 생산액('13) : 전남 1조 7,886억원 (전국대비 25%) / 전국 7조 2,273억원

○ **양식어장** : 양식어장 면적 전국 1위(전국 양식어장의 76%)
- ('06) 91천ha → ('08) 93천ha → ('11) 98천ha → ('12) 101천㏊

○ **양식수산물** : 양식수산물 생산량 전국 1위(전국 생산량의 65%)
- ('05) 756천톤 → ('08) 848천톤 → ('13) 1,070천톤

❑ 천일염 주산지

○ **생산량** : 세계 5대 갯벌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천일염
- 천일염 생산량('13) : 전남 381,642톤(전국대비 91%) / 전국 420,438톤

○ **생산면적** : 전국 최대 · 최적의 천일염 생산기반
- 생산가동 면적('13) : 전남 3,430㏊(전국대비 81.6%) / 전국 4,203㏊
  ※ 신안 2,606㏊, 영광 533㏊, 해남 167㏊, 무안 91㏊ 등

2 도정 운영방향

도정 운영방향

민선 3기
2004. 6 ~ 2006. 6

국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시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민선3기 도정 운영방향은 "도민에게 긍지를, 후손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힘 있는 전남건설"에 두고 도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였다.

故 박태영 도지사의 갑작스런 유고로 치러진 2004년 5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준영 도지사는 전임 지사가 추진해 온 '전남 경제살리기' 시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를 지속 보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내·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농어업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농어업인과 함께 직접 실천하였다.

* 민 주 당 – 박준영 후보 – 득표율(57.6%) – 308,309표 ★당선
열린우리당 – 민화식 후보 – 득표율(35.0%) – 187,174표
민주노동당 – 김선동 후보 – 득표율(7.4%) – 39,776표

2004년의 도정운영의 중점방향은 **첫째, 외국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MOU(양해각서) 체결 기업을 비롯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했다.

국내·외 기업들이 안심하고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특히 IT관련 산업, 대학, 연구소, AS센터 유치 등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환경산업 유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목포 대불자유무역지역 조기 활성화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전남발전 비전과

전략' 을 수립하고 전남발전을 견인할 10대 핵심산업*을 선정하였다.

* 전라남도 10대 핵심산업
① 친환경농업 육성 ② 향토산업 육성 ③ 권역별 해양 · 문화관광산업 육성
④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⑤ 생물 · 한방산업 육성 ⑥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⑦ 항만 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⑧ 부품소재 · 항공우주산업 육성
⑨ 신 ·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⑩ IT산업 육성

둘째, 전남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했다.

이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해 꺼져가는 전남 농어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을 통해 DDA 협상과 쌀 재협상, FTA 체결 등 농수산물의 본격적인 수입 개방에 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관세유예와 농업직불제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친환경 농업특구를 마련하고 도서 · 어촌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시설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을 높여나가고자 했다.

아울러 농어촌 체험농장과 아름다운 도서관광 마을,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농외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적극 힘썼다.

셋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 · 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도가 가진 비교우위 자원인 물과 섬, 그리고 해안선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문화 · 예술 자산을 활용하여 국내 · 외 관광객 유치에 매진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참여관광을 활성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의 문화 ·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민주화의 횃불인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갔다. 또한 예술재단(은행) 설립,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산업도 집중 · 발굴 육성해 나가고자 했다. 특히, 2012 여수엑스포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유치에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다.

넷째, 물류 · 교육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반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국내 · 외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광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이미 추진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노선과 전라선 복선 · 전철화, 광양 컨부두와 목포 신외항 건설, 무안 국제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국도 77호선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개통과 2005년 추진될 남악신도청 시대를 맞아 도내 어디에서도 도청까지 1시간 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다섯째, 어려운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역할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장애우를 위한 인권센터와 점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순회 의료진료 등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여섯째, 도민이 적극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펼치면서 도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실을 개방했다. 또한 시민 · 사회단체 등과 도정의 정책별 연계망을 구축하여 도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70년 이후 전국인구는 51% 증가한 반면 전남인구는 4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말 전남의 인구 2백만명선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에 모두 좌절한다면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민의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우리 전남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보이지 않고 험난하더라도 한 사람이 길을 열기 시작하면 곧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남이 가야할 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후대를 위해 미래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년전 시작된 산업화에 뒤진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제 40년, 50년 후를 지배할 산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IT, BT, NT 등 미래산업을 이 지역에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전남만이 지닌 자산을 산업동력화 하는 것입니다. 전남의 물과 섬, 해안선과 갯벌 등 자연친화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특산물은 바이오산업을, 풍부한 태양열, 바람, 조류 등은 대체에너지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풍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2005.1.5. 2005년도 연두 기자회견 중에서)

2005년 : 남악 신도청시대 그 대단원의 시작

광복 6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2005년.

도정운영 방향은 크게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고소득 작목과 수출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두었다.

둘째, 투자유치 실현을 가속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셋째,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참여형 관광지를 적극 개발하고 해양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허브로 육성해 나가고자 했다.

넷째, 동북아 중심항만 선정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광양항과 목포 신외항을 차질 없이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 및 교역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키고자 했다.

또한 2005년은 전라남도가 109년 만에 '광주청사' 시대를 접고 전남 무안군의 남악 신도청으로 이전을 마무리하고 그해 11.11(금) 남악

신도청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진 해이기도 하다.

* 남악 신도청 신청사
- 사업기간 : 2001. 12. 21 ~ 2005. 8. 11
-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대지면적 : 231,781㎡ (70,113평)
- 건축면적 : 연 79,305㎡ (23,989평) – 지하 2층, 지상 23층
- 사 업 비 : 1,687억원(공사비 1,323, 보상비 154, 용역비 등 210)

여야 3당 대표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등 정·관계인사와 해외 향우, 출향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청식에서 전라남도는 "녹색의 땅 전남" 비전 선포식을 갖고 스스로의 운명을 바꿔 동북아 시대에 번영하는 한국의 엔진이 되자고 하는 강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풍요와 번영의 지역 혁신과 도전의 지역, 전라남도,
수려한 천혜의 자연과 남도의 멋을 품은 전라남도가 희망찬 내일을 향해 비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전라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중심지 건설을 위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BT·NT 등 첨단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 전통적인 농수산업을 친환경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동력으로 삼아 나가고 있습니다.

– 중략 –
이제 전라남도는 새로운 도전의 세기를 맞았습니다.
변화와 발전이 있는 곳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힘을 한데 모아,
–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하면서,
– 수려한 다도해와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신해양 시대를 개척하고,
– 오염되지 않은 넓고 깨끗한 들녘을 토대로 친환경 생명산업을 가꾸는 "녹색의 땅, 전남"을 선포합니다.

(2005.11.11. 녹색의 땅 전남 슬로건 비전선포문 중에서)

민선 4기

2006. 7 ~ 2010. 6

2006.5.31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준영 후보가 2006.7.3일 제35대 전라남도지사로 취임하였다.

* 열린우리당 – 서범석 후보 – 득표율(19.19%) – 181,756표
한 나 라 당 – 박재순 후보 – 득표율(5.85%) – 55,444표
민 주 당 – 박준영 후보 – 득표율(67.7%) – 640,894표 ★당선
민주노동당 – 박웅두 후보 – 득표율(7.25%) – 68,702표

박준영 도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임기 내 업적보다 30~50년 후를 보고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초석을 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년간 친환경농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친환경농업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을 더하여 농업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했다.**

특히, '3농(농업+농촌+농업인)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하여 농촌 사회의 희망의 씨앗을 심는 기초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또한 도시 못지않은 교육 · 문화 ·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행복마을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을 계기로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형태를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통합하고 재편해 나가기 위한 시도도 진행되었다.

둘째,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고 일자리는 곧 기업이 만드는 것이므로 기업유치와 기업창출에 도정역량을 결집시켜 나갔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불 자유무역지역 등 입지여건이 개선된 산단 뿐 아니라 전남 도내 전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단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조선산업 및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정보산업 · 생물산업 · 나노산업 · 우주산업 등 미래첨단산업도 착실히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셋째, 독특한 자산을 산업화하여 내부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그동안 무심히 보아 넘겨왔던 전남의 산과 들에 나는 약초, 청정해역에서 나는 김과 미역, 천일염 등 천연자원은 기능성 식품으로, 더 나아가 신약으로 개발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했다.

천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하여 전남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들을 기업화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또 하나의 천연자원인 햇볕과 바람,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의 선두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했다.

넷째, 내륙 및 해양관광 산업을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남의 섬 관광개발,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 그리고 국제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지리산과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내륙관광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

지역개발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규제해소를 위해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농촌마을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방향은 한옥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농촌마을도 살리고 민박 등 체험관광산업과도 연계하여 전남만이 갖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했다.

2006년 도정 주요성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 BIE 공식 유치신청 및 추진체계 확립
  - 유치신청서 제출('06. 5), 중앙과 지방 유치지원조직 구성, CI 확정 등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체계 구축
  -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가시화
-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확정
  - FOM과 유치 조인식 체결로 대회개최 공식화, 운영전담법인(KAVO) 설립
-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221만평) 완료
- 역내 접근도 제고를 위한 1시간대 고속교통망 확충에 주력
  - 장성~담양간 개통, 목포~광양, 무안~광주, 광주~완도 고속도로 계속 건설 등
- 신소재, 바이오, R&D 등 미래산업의 성장거점 확보
  - 세계최대 마그네슘 판재공장 착공, 나노생물방제 실용화센터 사업 선정, 독감백신원료 생산시설 착공, 테크노파크단지 착공, 지역 IT특화연구사업 선정
-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가시적 성과 거양
  - 332개 업체(투자액 1조 7,784억원) 유치, 일자리 1만여개 창출
- 「친환경 생명산업 = 전남」이라는 확고한 이미지 구축
  - 친환경농업 대상 수상, 4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쌀 최다 선정(12개중 5개)
  -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 수립, 전국 축산물 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2007년 :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2007년이 시작되면서 도정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유치였다. 이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유치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다하였다.

중앙부처 차원의 유치노력과 병행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박람회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전남이 가장 큰 자산으로 갖고 있는 해양자원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의 메이저급 국제행사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준비에도 가일층 속도가 붙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경주장 착공에도 속도를 내었다.

아울러 권역별(중남부권,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공동혁신도시, 순천신대지구 등 신도시 건설, 도내 1시간대 도로교통망 구축 등 SOC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복지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산업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시도가 시작되었다. 노령층과 여성 인력을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흡수하고 실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2007년 도정 주요성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07. 11. 27.)
-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광주 · 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 ('07. 11. 8.)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SPC 설립완료, 개발계획(51.57㎢) 승인 신청
  - 2010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 경주장 착공('07. 7) 및 특별법 제정 추진
- 동 · 서 ·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으로 해양개발의 법적기반 마련
  - 각종 개발규제 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특례 등
- 425개 기업, 2조 4,365억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16,469개를 창출
- BT, IT, NT, 신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 확보
  - 마그네슘판재공장(해룡산단) 준공,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목포)와 나노생물방제 실용화센터(장성 · 곡성) 설계완료, 지역 IT 특화연구소 개소(순천) 등
- 천일염 등 비교우위 천연자원의 블루오션 산업화 추진
- 전국 제1의 친환경 생명산업 중심지로 확고한 이미지 구축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65천ha(전국 50%), 친환경축산 185호(전국 24%)
- 행복마을 조성(27개) 및 섬 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 추진
- 농어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18개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1만개)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도내 1시간대 고속교통망 지속 확충
  - 무안~나주간, 장성~고창간 고속도로 완공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본격 건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핵심인프라로 '08년 정부예산에 11건, 11,565억원 확보
- 일반산단 5개소 신규 지정, 중남부권 산업단지(4개소, 총 7,950천㎡) 타당성조사 완료 및 광주 · 전남 공동산단 타당성조사 합의

2008년 : 해양개척과 균형발전 두 가지를 실현해 나가는 해

2008년이 시작되면서 전라남도는 해양개척과 균형발전 두 가지를 도정운영의 최대 현안으로 삼았다.

2007년 11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42차 BIE총회에서 2012 여수엑스포 유치가 최종 확정된 것을 계기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정 최우선 과제 역시 여수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켰다.

서남해안 개발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해양관광 개발과 함께 해양물류와 조선사업의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면서 해조류 등 수산자원에 신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했다.

농수산업과 같은 전통산업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키면서 1차 산업에 가공과 유통을 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보화와도 접목시키는 방안이 폭넓게 추진되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서비스도 강화하였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책임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남도가 그간 줄기차게 요청해 왔던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 추진이 최대 화두가 되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영산강 개발을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운하 건설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전라남도가 추진한 뱃길복원사업은 주변의 문화유적과 환경보존 문제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이명박 당선자에게 핵심 도정 현안도 함께 건의하였다. 우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법' 조기 제정과 참여정부에서 서남권개발계획으로 세운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 계속 추진, 농어촌 대책으로 농어촌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하므로 농어촌에 외국어교육 지원과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포함되었다.

2008년 도정 주요성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체계 마련, 특별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SPC 설립완료, 개발계획 정부승인 추진
  - 2010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 경주장 계속 공사 (토목공정 37%)
- 462개 기업, 4조 7천억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23천개 창출 ('08.11 기준)
  - 민선4기 이후 : 1,025개 업체, 7조 9,453억원 유치, 일자리 44,000개 창출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강진 성전 및 장흥 해당 산단신규지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반산업단지 집중 육성
  - 국가산단 1개소 4,885천㎡, 일반산단 24개소 56,303천㎡
- 조선 · 생물 · 신소재 등 전략산업 인프라 확충
  - 조선타운 개발계획 수립, 화순 독감백신공장 완공,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유치 등
- 천일염의 명품산업화 기반 마련
  - 염관리법 개정(식염화), 친환경 특화 생산단지 조성,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전국 제1의 친환경 생명산업 중심지로 위상 확립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96천ha(전국 53.4%), 무농약 인증 확대(전년비 86% 증)
- 녹색축산, 녹색산림, 친환경 수산 선포로 생명산업 다양화
  - 녹색축산 5개년 계획, 녹색산림발전 10개년 계획, 친환경수산 5개년 계획 수립
- 행복마을 본격 조성 및 농어촌 교육지원 강화
  - 유형별 행복마을 32개소 조성, 다양한 도시민 홍보로 1,067명 유치
  - 농어촌교육여건개선방안 수립, 전남인재육성재단 설립, 영어체험캠프 운영
- '2008 광주 · 전남 방문의 해' 성공 추진 및 독창적 관광자원 개발
  - 전남축제 방문객 28%(17백만명) 증가, 슬로시티 · 명량대첩제 · 거북선형 유람선 등
- 친환경적 뱃길복원을 위한 영산강 프로젝트 국고예산(1,811억원) 확보

2009년 :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매진하는 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등 각종 시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라남도 역시 그동안 추진한 역점시책과 접목 · 발전시키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다.

그러나 2008년 9월 15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을 계기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도 자체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가 운영되면서 2009년이 시작되었다.

우선 도정 전반에 걸쳐 민 · 관 협력 경제대책 추진협의회 구성과 전라남도 비상경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의 조기집행과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기 부양에 힘써 공공부문 일자리 28천개 창출에 매진했다.

투자유치 비상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도민 참여 1읍면동 1기업 유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켰으며, 112억원에 달하는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8개소 일반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였다.

생물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천연자원연구원, 생물특화센터, 나노바이오센터, 독감백신 생산공장을 설립함과 동시에 고흥우주센터 과학기술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서남해안의 풍력과 조류,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점유율을 2007년 전국 28%에서 40%까지 확대하면서 해양에너지 자원조사 및 R&D기관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맞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탄소제로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개발하고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범사업 추진과 녹색디자인사업을 통해 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했다.

아울러 F1코리아그랑프리 운영을 총괄할 F1대회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법령의 조기 제정을 위한 비상 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생산자가 직접 출자하는 품목별 주식회사를 7개사 설립하여 수산업을 규모화·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지 유통 전문조직(44개소)과 시·군 유통회사(8개소)를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에도 힘썼다.

행복마을 육성, 농어촌교육여건 개선 등 미래형 농어촌 조성과 함께 국립공원 규제완화, 영산강 뱃길복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2009년 도정 주요성과

- 「2012여수세계박람회」접근성 제고 및 박람회장 조성 착수
  - 주요 SOC적기 추진(14개 사업 평균 공정 57%), 박람회장 기공식
- 「2012년 국제 해양 · 기상학총회(JCOMM)」,「2013 순천정원박람회」유치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본격개발 교두보 확보
  - 삼호 ·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삼포 · 부동지구 개발계획 승인 신청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국가계획으로 확정
- 경기불황에도 442개 기업, 3조 5,772억원 유치, 일자리 15천개 창출
  - 53개 수도권 기업 유치(전년대비 5.9배), 투자실현 전년대비 9.5%증가
- 생물 · 식품산업 육성기반 확충, 마그네슘 · 세라믹 등 신소재 산업화
  - 독감백신공장 본격가동, 생물산업 7대 연구기관 산업화 지원
- 우리나라 최초 자력 위성 발사로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 가능성 입증
  - 나로 우주센터 준공, 우주항공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 친환경 생명산업 규모화 및 품질 고급화 추진
  - 친환경 농 · 수 · 축산물 인증 전국 1위, 생산이력추적등록 등 안전성 강화
-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진화와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 농산물 시 · 군 유통회사(10개소), 수산물 품목별 주식회사(4개소)
- 독특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 Slowcity특화, 섬 경관 디자인,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영산강 · 섬진강 살리기 사업 정부계획 반영 및 사업 착수
  - 총사업비 3조 642억원(유역면적당 사업비 전국 최고), 54개 지구 착공

2010년 :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매진

생물, 신소재,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보유기술을 산업화하고 R&D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썼다. 총력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성장거점의 본격 개발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에도 주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국제소금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모터스포츠, 천일염 등 연관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박람회장 본격 조성 및 핵심 SOC 적기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완벽한 준비태세를 확립해 나갔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실행기반 구축 및 서남권 신발전지역 개발 가시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추가 산단개발 등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였다.

농업, 농촌, 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 정책으로 농촌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품질고급화에 힘써 나갔다. 또한 농어촌을 치유와 재충전의 공간으로 개발하고 지역특화 식품 산업화 지원 등 소득의 다원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서남해안 5GW풍력프로젝트 등 해양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용산단 활성화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환경산단 조성 등 환경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영산강 등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토대 역시 마련하였다. 슬로시티, 섬, 갯벌 등 비교우위 생태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전지 훈련팀 유치,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집중하였다.

2010년 도정 주요성과

-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유기농 기반 구축
  - 친환경 인증 확대(무농약 이상) : ('09)43천ha → ('10)62천ha
  - 유기생태마을 · 자원순환형 광역단지 조성, 가공식품 유기인증 전국 최다(252개)
- 친환경 녹색축산 기반 강화 및 곤충산업 육성전략 수립
  -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 222억원(목표액 1,000억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 : 2,028호(전국 36%, 전국 1위)
  - 전국 최초「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273억원, 5개 분야 20개 사업)
- 「기업 1천개 유치 3개년 계획('08~'10)」 초과 달성
  - 기업 1,096개 유치, 투자액 8조 9천억원, 42천명 고용 창출
-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F1대회 성공개최로 지역발전 토대 구축
  - 국가 · 전남 브랜드 가치 상승, 모터스포츠산업 육성 전기 마련
  - 총 관람객 165천명(외국인 9천명), 단일종목 최고 기록(결승전 8만명)
  - 경제효과 : 직접지출 5,592억원, 생산유발 1조 1,174억원, 고용유발 9,584명
- 본격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과 참가국 확보 등 성공개최 기반마련
  - 아쿠아리움('10.3) · 한국관('10.8) 등 착공, 숙박시설 확충(대명콘도, 경도개발)
  - SOC 예산 72% 확보, 미국 · 독일 · 일본 등 75개 국가 및 3개 국제기구 참가
- 생물의약 및 신소재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
  - 생 물 : 헬스케어연구소 기공('10.8), 백신산업 특구 지정('10.11)
  - 신소재 : 자전거생산 기반 구축, 수송기부품 사업화 지원동 착공('10.5)
  - 신산업 : 마이크로 레이저 · 전기자동차 · 우주로봇산업 발굴 및 천일염 명품화
- 전국 최고의 신 · 재생에너지산업 메카 조성 추진
  - 5GW 풍력프로젝트(47개 기업 유치) 및 정부 에너지원별 Test-Bed 구축사업 추진
  - 대규모 발전단지(총 2,071MW) 및 신 · 재생에너지 전용단지(211천㎡) 조성
  - 서남권청정에너지연구원('10.5) 및 8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발판 마련
  - '1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확정, 사업 확정 시 3천억 규모 국비지원
  - 행복마을 조성사업 가시화 및 미래 농어촌 성공모델로 부상
  - 71개 마을, 한옥 972동, 국가정책에 반영(국가건축위원회의 신한옥플랜)

민선 5기

2010. 7 ~ 2014. 6

2010.6.2일 전국 동시에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준영 후보가 7.1일 제36대 전라남도지사로 취임하였다.

* 한 나 라 당 – 김대식 후보 – 득표율(13.39%) – 123,548표
민 주 당 – 박준영 후보 – 득표율(68.30%) – 629,984표 ★당선
민주노동당 – 박웅두 후보 – 득표율(10.90%) – 100,581표
평화민주당 – 김경재 후보 – 득표율(7.39%) – 68,220표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처음 지사직을 맡은 지 한달 만에 전남인구 200만이 무너졌습니다. 350만이었던 인구가 40년 만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정말 아프게 들었고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풍요롭던 전남을 사람이 떠나는 땅으로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친환경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섬과 해안선, 천일염, 해양바이오 산업 등입니다. 전남이 한번도 꿈꾸어 보지 못했던 엑스포 등 국제행사도 유치했습니다. 생물산업, 백신, 마그네슘 등 첨단 미래산업도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전남의 강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비교우위 자산을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의로운 선조들의 피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413년 전 명량해전, 116년 전 동학농민혁명, 30년 전 광주민주화운동 등 저는 이런 도민이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믿음이 옳았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 좋은 분야는 꼴등, 나쁜 것은 1등을 하던 전남이 1등하는 분야가 생겨나고 기업이 오기 시작하고 전남이라는 이름이 한국을 넘어 국제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 (2010.7.1, 제36대 전라남도지사 취임사 중에서)

2011년 : 3농 정책과 기업유치, 4대 국제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

3농 정책을 통해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며 4대 국제행사를 통해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인구 200만 회복 기반을 구축하고 잘사는 전남 건설을 위한 일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데 매진하였다.

전남이 발전하려면 삶의 근간인 농어촌이 먼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고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유통혁신과 규모화 ·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돈 버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했다. 또 마을별, 들녘별, 품목별 농수축산회사를 설립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또한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서 도시민들이 돌아오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4년 동안 기업 2천개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전남이 선점한 신재생에너지분야, 생물산업, 신소재,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가운데 관광산업, 특히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지 곳곳에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남을 찾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성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였다.

미래 전남의 모습은 행복한 공동체로서 후손들이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고자 했다.

2011년 도정 주요성과

- **「기업 2,000개 유치」 총력추진체계 구축**
  - 기업 569개 유치, 10조 9,451억원, 22천명 고용효과
  -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세계적 풍력기업 베스타스 등 3개 기업)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27개소(완료 5, 추진중 22), 농공단지 조성(11개소)
  - 유망중소기업 발굴 · 지정(369개 기업), 중기 육성자금 지원(1,550억원)
- **친환경 청정 먹거리생산 중심지로 부각**
  - 친환경 인증 점유율 전국 최고(농업 61%, 수산 98%, 축산 36%)
  - 국내 유일의 구제역 미발생 지역으로 "전남 = 청정" 이미지 각인
- **친환경 농 · 수 · 축산물의 시장 지배력 강화**
  - 서울 학교급식 시장 선점(쌀 48%, 과채류 51%), 농산물 수출 사상 최대(25천만$)
  - 유통회사(25개소) 및 주산지별 · 품목별 산지유통센터(73개소)

- **F1대회 성공개최로 국가 및 지역 브랜드 제고**
  - 국내 단일 스포츠 사상 최대규모 관람객 유치(160천명), 188개국 중계
  - 패키징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의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토대 마련**
  - 전시관은 2011년 말, 기타 시설은 2012년 2월까지 완공(종합 진도 85%)
  - 핵심 SOC인 완주~순천고속도로('11. 4), 전라선 KTX('11. 10) 개통
  - 106개 국가 및 9개 국제기구 참가 유치로 박람회 붐 조성 및 홍보
- **2012국제농업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 국제농업박람회 : 전시관 건립 등 기반공사, 10개국 107개 기관 · 기업 유치
  - 순천정원박람회 : 세계정원 10개소, 전시관 100개소 설치
-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위상 정립**
  - 풍력시스템 Test-bed 구축사업 선정 및 5GW 풍력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전국 최대의 태양광에너지 생산기반 구축(생산량 전국 1위)
  -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영광),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착공(강진)
- **행복마을 조성으로 미래 농어촌 성공모델로 부상**
  - 90마을 / 한옥 1,281동(목표 : '14년까지 200마을 / 한옥 3,152동)

2012년 : 세계를 향해 힘찬 날개를 펴고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해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이라는 주제로 개도 이래 처음이자 가장 큰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

전라남도는 인구늘리기와 농수축산업의 자생력 제고,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용하였다. 특히 지역의 자생력은 곧 사람에 있다고 보고 젊은이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도를 찾고 이에 따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노력했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역 특산자원을 산업화하고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이 선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자립화와 경영 및 창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미 미래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농수축산업 진작을 위해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전남이 다른 지역에 앞서 추진해 온 결과 전국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한 친환경농업의 성장전략을 거울삼아 유기농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하고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가공 및 유통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다도해와 해안선, 기름진 갯벌 등 해양자원이 전남의 미래를 열어갈 큰 자산으로 규정하고 큰 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수산물 소비에 대비해 양식면적 대폭 확대, 규모화 · 기업화를 촉진해 나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5.12 ~ 8.12)와 2012F1코리아그랑프리(10.12 ~ 10.14), 2012국제농업박람회(10.5 ~ 10.29)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관기업 유치, 후방산업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2012년 도정 주요성과

- **여수세계박람회는 820만명 관람, 남해안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부각**
  - 104개 국가 · 10개 국제기구 참가, 해외언론에 565회 보도 등 관심 집중
- **3년 연속 F1대회 성공개최로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실현**
  - 매년 16만명 이상 관람객 유치 및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보강
  - 190개국 TV중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시청률: 스페인 51.3%, 독일 44.8%)
- **2012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방향성 제시**
  - 24개 국가 · 420개 기관 및 기업 유치, 농산물 및 기자재 1,880억원 판매
- **기업 2,000개 총력 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인구감소폭 완화**
  - ('10.7~'12.11) 948개 기업유치, 15조 5천억원 투자, 35천명 고용
-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및 특산자원 산업화 등 경쟁력 강화**
  - 생물 : 헬스케어 연구소, 3G-Bio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 신소재 : 신소재 · 세라믹 · 고분자 융 · 복합 소재센터 등 각 1개소 준공
  - 연구기관 : 생물산업 7대 기관, 과학기술진흥센터, 환경산업 진흥원 등
- **친환경 청정먹거리 생산 및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
  - 전국 친환경 인증 점유율(농업 61%, 수산 99%, 축산 36%)
  - 소득 증가

	전 국	전 남	
소득(증감률)	△ 6.1%	10.1%	전국 9위 ⇨ 5위
부채(감소율)	△ 6.1%	△ 17.3%	전국 최저

※ 2011 통계청 / 농가소득 및 부채 비교분석(2010년 대비 2011년 통계)

- **친환경 농 · 수 · 축산물의 시장 지배력 강화**
  - 서울 · 경기 학교급식 1,014억원 납품(시장점유율 쌀 48%, 과채류 51%)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행복마을 조성(124개)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 한옥건립(1,561동)

- 도내 1시간대 도로망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 목포~광양 고속도로 개통, 이순신대교 · 목포대교 건설, 전라선 고속화
  -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 77호선), 연륙 · 연도교 건설(27지구, 42.2㎞)
-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
  - 사회적기업 107개, 마을기업 28개, 지역공동체사업(2,359명)

2013년 : 세계를 향해 힘찬 날개를 펴고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해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받은 땅이라는 운명을 떨쳐내고 풍요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결과 친환경농수축산업과 여수세계박람회,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를 계기로 도민들 역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다.

2013년 도정은 기업을 지속 유치하고 생물산업, 친환경에너지, 신소재 등 전략산업을 키워나가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전남으로 이주해 살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농업분야에서도 유기농을 확대하고 식품 가공기업을 육성하면서 또 하나의 식량자원인 수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역시 첫 삽을 뜨는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될 것이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역시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갔다.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거기는 손님도 있고 주인도 있겠죠.
그런데 불이 났는데 거기서 주인과 손님은 달라지죠. 손님은 빨리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피해서 어딘가를 가겠죠.
허나 주인은 어떡해야 됩니까? 주인은 어떻든 불을 끄고,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종업원들 또 피해를 볼것이냐, 어떻게 또 방책을 구해야 됩니다.
이 호스트와 게스트의 차이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주인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청 공직자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되자.

– 중략 –

호텔을 전라남도와 비교해 봅니다. 불이 났다. 다 도망갈 수 없다. 나는 주인으로서 무엇인가 수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전남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 해안선, 섬, 일조량, 온화한 기후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매년 3만6천명씩 줄던 인구가 4,000명대로 떨어집니다.

(2013.5.16. 경기도청 공무원 특강내용 중에서)

전남은 하늘, 땅, 바다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녹색의 땅 전남' 슬로건 아래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3농 정책, 바다경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마다 은퇴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은퇴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은퇴도시담당관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가 유일합니다.

요즘 초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깨끗한 전라남도에서 살아야겠다면서 어디가 좋은지 문의를 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은퇴도시를 곳곳에 조성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깨끗해 건강에 좋고 적은 생활비로 살 수 있는 전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가 멈추고 언젠가는 희망이 넘치는 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전라남도에 투자를 하려고 도내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또 영암에서 열린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보기 위해 스웨덴 왕자가 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우리 도의 자원을 설명했더니 전라남도가 '한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더군요. 미국 플로리다도 초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늪지였지만 어떤 투자가가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따뜻한 점에 착안해 이곳에 은퇴타운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비싼 집이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늪지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도를 위해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 정책들이 후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대학생 때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남도민이 모두가 주인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동참한다면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3.11.26. 전라남도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씀 중에서)

2013년 도정 주요성과

-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2,000개 유치 가시화**
  - ('13) 기업 440개 유치, 투자액 4조 9천억원, 일자리 창출 11천명
- **사회 안전망 차원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97개), 마을기업(98개), 협동조합(133개) 육성
  - 노인일자리 사업(18천명), 취약계층 일자리사업(12천명)
- **저비용 유기농 확대를 통한 친환경농업 정착**
  - 전국 최고의 친환경 인증 점유율(농업 57%, 수산 99%, 축산 36%)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행복마을(135개 마을, 한옥건립 1,864동), 은퇴도시(3개지구), 전원마을(48개소)
-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 전국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전국의 34%, 1,480개소, 405MW)
  - 5GW풍력프로젝트(육 · 해상 시범단지 조성), 풍력시스템 Test-bed 구축
- **수산업의 규모화 ·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장흥 무산김, 완도 전복, 여수 새꼬막 등 9개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
  - 전략품목(김, 전복) 수출 증가 : ('12) 68,084 → ('13) 88,180천불
- **관광객 확보를 위한 국제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 전세기(무안공항) / 148편 : ('12) 4,592명 → ('13) 39,217명
  - 크루즈(여수 · 광양 · 목포) / 18항차 : ('12) 17천명 → ('13) 48천명
- **4년 연속 F1대회 성공개최 및 모터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 매년 16만명 관람객 유치, 185개국 5억명 시청,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유치
  - F1경주장 상시 활용 및 수익창출로 연계(연간 234일 활용, 26억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생태관광의 가능성 확인**
  - 23개국 83개 정원, 관람객 440만명 달성, 자체수입 514억원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긴급복지 지원(4,0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81천명), 통합사례관리(23천가구)
  - 기초노령연금(311천명), 노인일자리(17천명), 공중목욕장 건립(127개소)

2014년 : 도민들이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 해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훈훈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매년 3만6천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2013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을 포함해 최종 1,50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우선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서 생물산업과 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미래에 빛을 볼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행복마을과 전원마을, 은퇴도시를 확대해서 농어촌에 활력이 돌아오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생명산업인 농수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반드시 키워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비율을 높이고 기업화 ·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가공산업 육성과 유통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다.

넷째, 큰 양식 섬을 조성하여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4대 국제행사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F1경주장 주변을 모터스포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섯째,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에도 더 큰 힘을 실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바로 서로 돕고 사는 훈훈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일인 만큼 질서 있고 친절한 사회, 이웃과 화합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